

‘조선적 생물학자’ 石宙明의 나비분류학

문 만 용

한국외국어대학교

Butterfly-Taxonomy of “the Korean Biologist”, Seok Joo-myung

MOON Man-y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In his relatively short period of career from 1931 to 1950, Seok Joo-myung(石宙明, 1908-1950) made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taxonomy of Korean butterflies. Examining the length of forewings and the numbers and positions of eye-spots, he tried to handle his specimens with statistical method. He was not aware of the burgeoning statistical methods in modern taxonomy. Yet, his success was largely due to his statistical sensitivity in his classificatory endeavors: He was able to correct the errors of many "splitters" through his numerous observational data statistically interpreted.

Seok dubbed his research on the Korean butterflies as "the Korean(indigenous) biology". What he meant by "the Korean biology" was that his research on the butterflies should be considered a part of the classical, or traditional national studies, namely, Korean studies. His biology was not a mere natural science, but also a part of his effort to understand Korea including Korean culture and humanities. Some corroborating evidences revealing his tendencies in incorporating science into general culture could be seen from his early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language and from his later studies on the dialect of the Chejoo island, as well as from his strenuous effort coining the indigenous names for the butterflies identified.

In fact, there was a visible movement on the Korean national studies during the mid-1930s, and Seok was actively getting along with some major figures leading the movement. Indeed, the pursuit of "the Korean biology" was the expression of Seok's approach to understand Korea as a whole.

Key Words: Seok Joo-myung, Butterfly-Taxonomy, Individual Variation, Synonym, "Korean Biology"

1. 서론

일제시기에는 사회적·제도적 제약으로 이공학 분야에서 전문 연구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조선인이 매우 드물었다.¹⁾ 조선에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시험연구기관, 과학기술 학술단체는 그 숫자도 적었으며, 상당수는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는 중일전쟁 이후에 설치되었다. 또한 시험연구기관은 모두 소규모로 대개 시험 및 조사만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기에, 당시 조선에는 활발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극히 적은 상태였으며, 몇 안되는 학술단체에서 학술활동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다. 그렇지만 1923년 결성된 朝鮮博物學會는 높은 수준의 실험장비나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연구가 가능했던 博物學이라는 분야의 특성 때문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전문기관에 근무하지 않고서도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수의 조선인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학, 좁게는 생물학²⁾ 분야가 이 시기 조선의, 나아가 조선인의 과학연구를 대표하는 분야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인 생물학자 중에서는 나비분류학을 주로 연구했던 石宙明(1908-1950)을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석주명은 일제시기 동안 10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양적으로도 다른 연구자보다 월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가 당시의 생물학에 미친 영향에서도 단연 두드러졌다. 그는 중등학교 박물관사로 근무했지만 조선산 나비에 관해서만은 당시의 학계로부터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으며, 조선인의 과학적 능력을 널리 떨친 '세계적인 학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으며 조선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인식되었다. 때문에 석주명의 나비연구를 살피는 것은 단순히 한 생물학자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넘어 일제시기 조선의 생물학 연구, 조선인의 과학활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일제시기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조선인 과학기술자들의 형성 과정, 교육 정도에 대해서는 박성래, "한국 과학기술자의 형성 연구" (한국과학재단 연구보고서, 1995): 金根培, "日帝時期 朝鮮人 과학기술인력의 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을 참고할 것.

2) 일제시기에는 생물학이라는 표현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물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1922년의 교육령에 따르면 고등보통학교에서 가르치는 박물학의 목표와 내용은 "천연물에 관한 지식을 주고 그 상호작용 및 인생에 대한 관계를 이해시키며 관찰력을 기르는 데 요점을 두고, 중요한 식물·동물·광물에 관한 일반지식과 인체의 구조, 생리 및 위생을 가르치고 적절한 실험을 하는 것"으로서 동식물학과 보건위생은 물론 광물학도 그 일부로 포함하였다. 金東泌, "韓國 科學教育의 時代的 變遷", 「科學教育研究論叢」 1집(1976), 46-74쪽 중 62쪽. 하지만 당시 진행된 박물학 연구의 대부분은 동식물학 분야였으며, 이 글에서도 동식물의 연구라는 좁은 의미의 박물학을 살피고자 하기에 '박물학'이 아닌 '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다.

그 동안 석주명을 소개하는 짧은 글이 여러 편 발표되었으며,³⁾ 1985년에는 평전이 출판되었다.⁴⁾ 짧은 글들은 대체로 석주명의 약력과 업적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의 생물학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평전에는 저자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그간에 단편적으로 혹은 잘못 알려진 석주명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새롭게 정리되어 있으며 그의 논문 일부와 몇 편의 단문 등 유용한 자료들이 실려있다. 하지만 평전인 관계로 그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어 분류학 연구 자체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또한 일제시기의 생물학 또는 분류학의 역사를 다룬 글 중에도 석주명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을 포함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이 글들은 대부분 석주명의 연구업적만을 아주 간략히 기술하는 데 그쳤으며, 어떤 것들은 석주명에 대해 다소 왜곡된 평가를 담고 있기도 하다.⁵⁾

이처럼 그 동안 석주명을 다룬 글들은 대부분 그의 연구업적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이룩한 결과만을 알리는 것으로는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일개 박물교사가 그같은 성과를 얻어내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과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이 글의 초점을 석주명의 연구결과와 자체보다는 그것을 만들어냈던 과정에 두면서

- 3) 석주명을 소개하는 글로는 서광운, “석주명과 우장춘”, 『뿌리깊은 나무』 1976년 6월호, 84-89쪽; 姜永善, “石宙明”, 月刊 新東亞 編輯室 編, 『韓國近代人物百人選』 (東亞日報社, 1979), 314-316쪽; 米昇石, “나비 연구에 바친 一生”, 『世代』 1979년 6월호, 267-276쪽; 이병철, “외국 인생의 나비 박사 석주명”, 『한국인』 1984년 3월호, 129-133쪽; 申裕恒, “石宙明 (1908-1950)”, 『政經文化』 1985년 1월호, 436-437쪽; 박성래, “나비 박사 석주명”, 『한국인의 과학정신』 (평민사, 1993), 138-144쪽 등을 포함하여 10여 편이 있다. 그리고 日本鱗翅學會의 학회지에 두 차례에 걸쳐 석주명에 관한 글이 실렸다. 柴谷篤弘, “石宙明”, 『やどりが』 123호(1985), 12-15쪽; “再說 石宙明”, 『やどりが』 128호(1987), 12-19쪽.
- 4)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나비박사 石宙明 評傳』 (東泉社, 1985). 이 책은 1989년에 아카데미서적, 1993년에 성현출판사에서 다시 출판되었으나 내용의 변화는 없다. 나의 글에서는 1989년 판을 참고하였다.
- 5) 석주명의 연구에 대한 서술을 담고 있는 글로는 金昌煥, “韓國生物學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現代文化史大系 Ⅲ 科學・技術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77), 143-182쪽; 李昌彦・金元・權容正, “韓國 節肢動物 研究의 過去 및 現在와 發展方向”, 『한국동물분류학회지』 7권 1호(1991), 151-176쪽; 李炳勛・金辰泰, “西洋 近代 生物學의 國內 導入에 관한 연구—동물분류학을 중심으로”, 『한국동물분류학회지』 10권 1호(1994), 85-95쪽 등이 있는데, 마지막의 이병훈・김진태는 석주명을 鄭台鉉, 趙福成처럼 일본인 학자의 연구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고 자신의 업적을 쌓은 인물로 파악하였으나 석주명은 도제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의 학문적 성취도 대부분 독자적 연구의 산물이었다.

그의 연구가 그토록 탁월한 업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20여 년에 걸친 석주명의 연구가 어떻게 시작하여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당시의 분류학 연구상황과 그의 연구환경에 비추어 봄으로써 성공적이었던 연구경력의 핵심에는 독특한 연구방법론이 있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그가 자신만의 방법론을 확립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던 과정을 중심으로 추적하면서 그와 같은 방법론으로 수렴되도록 했던 배경과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석주명은 나비분류학 이외의 분야에도 상당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우리역사나 우리말, 특히 방언의 조사에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그 동안 석주명에 대해 발표된 글들은 이같은 인문학적 관심을 다재다능했던 생물학자 석주명의 또다른 모습 정도로만 기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 외적인 국학 분야에 대한 관심은 그의 생물학 연구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석주명은 해방 후에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 하에 생물학의 국학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단순히 일회적인 수사가 아니었으며 그의 연구활동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적 바탕이었다. 때문에 그의 생물학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류학 연구방법론의 분석과 함께 '조선적 생물학'의 성격과 배경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그가 자신의 관심을 단순히 나비의 분류라는 제한된 영역에 가두지 않고 인문학적 분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자신의 연구를 국학으로까지 승화시키고자 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 석주명의 생애

1908년 평양에서 태어난 석주명은 1921년 보통학교를 마치고 숭실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다음해 송도고보로 전학하였다. 당시 송도고보의 박물교사는 조류를 연구했던 원홍구(元洪九)였으며 석주명은 그의 지도와 영향으로 1926년 송도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의 카고시마(鹿兒島)고등농림학교 농학과에 진학하였다. 그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석주명은 송도고보 시절 덴마크의 농업에 흥미를 느끼고 낙농에 취미를 갖게 되어 축산 방면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농학과를 선택했으나 축산 교사가 만족스럽지 못해 우수한 동식물 교사가 있던 생물과로 옮겨 농생물학을 전공, 곤충과 식물병리를 주로 공부했다고 한다.⁶⁾ 하지만 당시 카고시마고농에는 농

6)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一)", 「新天地」 1949년 11월호, 214-220쪽.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은 2회에 걸쳐 「新天地」에 발표되었으며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新陽社, 1992), 5-26쪽에 전재되었다. 이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은 석주명이 신문이나 학회지에 발표한 단편 일부와 미발표된 단편들을 모은 것으로 석주선에 의해 출판되었다.

학과, 임학과, 양잠학과, 농예화학과의 4과가 있었으며 생물과는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생물과로 전과했다고 한 것은 아마도 입학 당시의 생각과는 달리 박물교사가 되기 위해 생물과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인다.⁷⁾ 카고시마고농에서 그는 일본곤충학회 회장을 지낸 오카지마(岡島銀次)의 지도로 곤충학을 공부했으며 교내의 에스페란토 연구회에 가입하여 시게마쓰(重松達一郎)로부터 에스페란토를 배우기도 하였다.⁸⁾

1929년 카고시마고농 졸업과 동시에 함흥의 영생고보 박물 교사로 부임한 석주명은 이 때부터 나비를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전공과 관계 있는 일을 하기로 하여 안력(眼力)에 자신이 없어 곤충을 택했고 곤충이라면 누구나 밝는 첫 단계인 나비를 채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⁹⁾ 1931년 원흥구가 평남 안주농업학교로 전근 가자 석주명은 그 후임으로 모교인 송도고보의 박물교사로 옮겨와 송도고보의 박물관에서 본격적으로 나비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는 1932년 첫 논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송도고보에서 근무했던 11년 동안 조선산 나비에 대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쌓아 나갔다.

우리나라 생물에 대한 근대적 연구는 19세기 중반 서양인의 채집 활동에서 비롯되었는데,¹⁰⁾ 조선산 나비에 대해서는 1882년 영국인 버틀러(A. G. Butler)가 첫 논문을 발표한 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석주명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던 1930년대 초에는 이미 조선산 나비에 대해서는 50여 년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서 희귀한 일부 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산 나비에 대한 채집 및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영국인 리치(J. H. Leech)와 일본인 마쓰무라(松村松年)가 대표적인 학자들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는 석주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¹¹⁾

7) 카고시마고농에 생물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日本帝國文部省第56年報」(文部大臣官房文書課, 1930), 344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보는 1928년 4월부터 1929년 3월까지의 것으로, 이 해는 석주명이 카고시마고농 3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였다.

8) 석주명은 카고시마고농 시절 익힌 에스페란토 실력으로 후에 에스페란토로 된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해방 후 우리나라의 에스페란토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에스페란토와 관련된 그의 활동은 金三守, 「韓國 에스페란토 運動史 (1906-1975)」(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6), 203-211쪽을 참고할 것. 이에 따르면 석주명은 일본동물학회의 기관지인 「動物學雜誌」에서 연구 논문에 에스페란토 개요를 붙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통과시켰다고 한다.

9)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214-215쪽.

10) 우리나라 생물학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金昌煥, “韓國生物學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現代文化史大系 Ⅲ 科學·技術史」(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77), 143-182쪽; 鄭英昊, “韓國 管屬植物分類學의 成長과 展開”, 「分類學의 돌담불」(藝樵 鄭英昊博士 華甲記念事業會, 1984), 13-171쪽; 金薰洙, “韓國生物學史—1945年 以前 概觀”, 「生物科學 сим포지움」 제10집(1989), 1-27쪽 등을 참고할 것.

석주명은 1942년 초 자신의 학문적 근거지였던 송도중학교를 그만두고 몇 달간의 자유로운 채집여행을 마치고 개성에 있던 京城帝大 부설 생약연구소의 촉탁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다음해에는 제주도에 생약연구소의 시험장이 생기자 그곳으로 옮겨 2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1945년 5월 수원 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학 부장으로 발령 받았으나 석 달 후 바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는 1946년 9월 미군정하의 과학박물관 동물학부장으로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했으나 1950년 10월 폭격으로 파괴된 과학박물관의 재건 회의에 참석하려고 가던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석주명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여 년간의 연구생활 동안 120여 편 이상의 논문과 영어로 출판된 1권을 포함하여 6권의 단행본을 발표했으며, 생전에 탈고했거나 또는 거의 완성했으나 발표되지 못한 유고 6권을 남겼다. 12권의 저서에는 조선산 나비에 관한 것 4편과 제주도에 관한 것 6편이 들어있다. 그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0여 편 이상이 조선의 나비에 관한 것이며, 일본이나 중국의 나비에 관한 것이 9편, 파충류·양서류와 조류에 관한 논문이 4편 있으며, 해방 후에는 제주도와 에스페란토에 관계된 글이 10여 편 이상 발표되었다. 발표한 논문의 숫자에서도 드러나듯이 그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조선산 나비에 관한 것이었고 그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가장 주요한 학문적 업적도 바로 조선산 나비의 분류학 분야였다.

이처럼 석주명은 연구성과 자체로도 탁월했지만 한편으로 그가 세계적인 나비학자라는 명성을 형성하게 된 데에는 ‘모리스와의 우연한 만남’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모리스와 석주명의 만남에 대한 기록으로는 스나이더(L. H. Snyder)¹²⁾가 석주명의 책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에 쓴 서문이 처음이다.¹³⁾ 이에 따르면 미국의 지질학자로서 몽고 지역을

11) 석주명은 우리나라 나비의 연구 역사를 5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1기는 ‘학명으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이고, 2기는 ‘서양인이 기록한 시대’(1882-1901), 3기는 ‘주로 일본인이 기록한 시대’(1905-1929)였다. 4기는 우리나라 학자로는 처음으로 조복성이 논문을 발표한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 ‘内外인이 기록한 시대’(1929-1939)이고, 5기는 석주명의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의 출판을 기점으로 하는 ‘정리의 시대’로 구분되었다. 石宙明, “韓國產 蝶類의 研究史”, 「韓國產 蝶類의 研究」(寶晉齋, 1972), 58-61쪽. 이 논문은 1950년에 완성되었으나 당시에는 발표되지 못했다.

12) 미국인 스나이더(한국명 申道愛)는 1908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한 이래 기독교 청년운동 등에 헌신했으며, 1926년부터 1933년까지 송도고보 6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석주명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석주명은 1934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발견한 네발나비과의 신종을 스나이더를 기념하여 *Meletaea snyderi* Seok으로 명명한 바 있다. 石宙明, “新種스나이더-하우몬모ドキに就いて”, *Zephyrus* 6(1935), 178-179쪽.

13) L. H. Snyder, “Foreword”,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Tyosen)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40), ix쪽. 이 책에 대해서는 3.2절에서 자세히 기술

탐사하던 ‘앤드류즈(R. C. Andrews)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모리스는 고비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한 뒤 일행과 떨어져 경성으로 오던 중 개성(일본명: 가이조)을 경성(일본명: 게이조)으로 잘못 알아듣고 개성에서 기차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개성에서 하루 머물게 된 그는 개성전도단의 안내로 송도고보의 박물관 표본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진열된 수많은 표본들을 본 모리스가 표본 수집 작업을 고무하면서 미국의 박물관과 표본을 교환할 것을 권유했으며, 그 결과로 송도고보 박물관은 ‘1930년부터’ ‘조류, 포유류와 다른 표본들’(bird skins, mammals and other specimens)을 미국의 여러 박물관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승우, 서광운 등은 석주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러한 서술을 확대해석하여 정확한 연도는 제시하지 않은 채 모리스가 송도고보에서 ‘석주명’과 만났고, 석주명의 화려한 ‘나비 표본’에 모리스가 감탄하여 미국의 여러 박물관과의 표본 교환 및 연구비 지원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1930년부터 표본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다.¹⁴⁾ 또한 이병철은 석주명 평전에서 모리스가 석주명과 만난 때를 1931년 가을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¹⁵⁾ 하지만 모리스가 송도고보를 방문했을 때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스나이더는 모리스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표본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앞에 인용한 것처럼 1930년부터, 그리고 나비 표본이 아니라 조류, 포유류와 다른 표본들을 미국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리스가 송도고보를 우연히 찾게 된 것은 늦어도 1930년 이전이 되는데 이 때는 석주명이 송도고보에 부임하기 전이었다.¹⁶⁾ 그리고 석주명도 자신이 모리스와 만났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외국 기관의 지원은 스나이더의 주선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모리스가 우연히 송도고보를 찾았을 때는 석주명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으며, 모리스의 감탄을 자아낸 표본들도 원흥구가 채집한 조류 박제를 비롯하여 송도고보 박물관에서 수집한 동물 표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그 동안 세계적인 학자라는 석주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던 석주명과 모리스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정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석주명은 이름의 영어 표기를 D. M. Seok으로 하였는데, 이는 ‘주명’의 평안도 발음인 ‘뉘명’을 따른 것이라 한다.

14) 석주명과 모리스의 만남은 米昇右, “石宙明先生 十週期를 맞아”, 「朝鮮日報」 1960년 10월 6일을 비롯하여 서광운, “석주명과 우장춘”, 86쪽 등 석주명을 소개하는 글 대부분에 실려있다.

15)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81-82쪽.

16) 석주명이 1931년에 송도고보에 부임했다는 것은 “松中二十五周年記念式—石・鄭 兩先生表彰式도舉行”, 「毎日新報」 1941년 10월 7일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석주명은 鹿兒島高農을 마치고 함흥고보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31년 송도고보에 부임했으며, 10년 근속하여 1941년에 표창을 받았다.

물론 석주명과 모리스와의 만남이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석주명이 송도고보와 외국 기관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혜택을 본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1931년 이후로 진행된 표본의 교환과 1933년 하버드대학의 비교동물학 박물관 관장인 바버(T. Barbour) 박사로부터 받은 백두산 채집여행에 대한 재정 지원 및 1936년 아메리카 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의 제주도산 인시류(鱗翅類)의 채집여행에 대한 지원 등은 석주명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다트머스의 윌슨 박물관(Wilson Museum), 클리블랜드 박물관(Cleveland Museum)과 조류연구재단(Cleveland Bird Research Foundation),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Field Museum), 프린스턴대학, 캘리포니아대학의 박물관 등 여러 기관과 교류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해외의 나비 표본을 받아 비교연구를 할 수 있었다.

석주명과 모리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의 진위 여부의 문제를 넘어, 석주명의 학문적 성공이 서양인 학자와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당시 한국인들의 문화적 열등감과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해 줄 한국인 학자사회의 부재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외국인, 특히 서양인의 호의적 평가를 절대화하는 경향도 그러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석주명의 표본(또는 원홍구의 표본)에 대한 모리스의 ‘극적인 감탄’은 곧 그들의 업적이 수준급임을 알려주는 증거로, 당시의 또는 후대의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자리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아니 신화 속에서 식민지라는 열악한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노력은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석주명과 모리스의 만남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석주명의 학문적 성공이 모리스와의 만남, 그리고 외국 기관들의 지원이나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성공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과 그를 뒷받침한 학문적 정진에 있었다.

3. 통합론자(Lumper)로서의 나비분류학

교편을 잡으면서 시작되어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석주명의 나비연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929년 카고시마고농을 졸업하고 박물관교사로 근무하면서 나비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1933년까지로, 이 시기 그의 연구는 단순한 목록의 작성에서 시작하여 개체변이 연구라는 이후의 중심적 연구테마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 시기는 1934년에 발표한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一報)”를 시작으로 개체변이를 밝히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939년 그간의 연구를 일단락 짓는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를 완성한 때까지이다. 이 시기에 정립된 그의 분류학 방법론은 그 이후로도 굳건히 유지되었다. 셋째 시기는 그 이후부터 석주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로, 변이연구의 대상을 넓혀 가는

한편 조선산 나비의 분포연구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 가는 시기였다. 물론 이 시기는 10년이 넘는 기간이고 그 사이에 해방이라는 사회적·정치적 격변이 있었으나 그의 생물학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지어 설명할 만한 커다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시기에 그는 분류학 연구 외에도 인문학적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생물학 연구에 국학의 가치를 부여하려 했으며, 해방 직후 이러한 시도를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하였다.

1) 초기의 연구(1929-1933): 문제의 인식

나비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 석주명은 우선 자신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나비를 채집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는 연구지침이 될 만한 적당한 문헌도 없었고 특별히 지도해 줄 사람도 없었기에 단순히 채집해서 정리하는 ‘원시적 방법’의 분류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제대로 된 곤충도감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 출간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일부 종만을 포함한 간략한 도감이나 곤충분류학 일반에 대한 설명 또는 간단한 검색 표만을 담고 있는 책밖에 없었고, 영어권의 도감들은 구하기도 어려웠고 책의 구성도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1931년 송도고보로 옮긴 다음 松京昆蟲研究會¹⁸⁾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펼칠 즈음 석주명의 표현을 따르자면 마치 자신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출판된 것처럼 마쓰무라(松村松年)의 「日本昆蟲大圖鑑」과 우찌다(內田清之助) 등의 「日本昆蟲圖鑑」이 각각 1931년, 1932년에 간행되었다. 그는 이들 참고도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채집한 표본들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1932년부터 논문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에 발표된 논문은 「松京昆蟲研究會會報」 1호에 실린 “開城地方의 蝶類” 등 4편과 카고시마고농 1년 선배이자 평북 구장공립보통학교 교장이었던 다까즈카(高塚豊次)와 공저로

17)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214-215쪽. 이 글은 석주명이 1949년에 발표한 글로서, 나비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과 연구 과정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작성한 글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지만 그가 발표한 초기의 논문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사실적인 서술로 판단된다.

18) 송경곤충연구회의 설립과정과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석주명의 부임 이후에 결성되었으며 송도고보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석주명이 주도하여 조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체는 1935년 당시 9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1932년 「松京昆蟲研究會會報」 1호를 발간하였다. “學術部隊의 參謀本營(其2)”, 「東亞日報」 1935년 1월 3일에 송경곤충연구회에 대한 짧은 소개가 실려있다. 한편 석주명이 朝鮮博物學會에 가입하면서 학자들과 교류를 갖기 시작한 것도 송경곤충연구회의 설립 즈음으로 보인다. 그의 이름이 회원명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33년부터이나 정확한 가입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의 *Zephyrus*에 발표한 “朝鮮 球場地方産 蝶類目録”¹⁹⁾이 있다. 이 논문들은 채집한 나비 표본을 정리하여 작성한 목록이었으며, 다음해에 「朝鮮博物學會雜誌」에 발표한 “開城地方의 蝶類”도 같은 성격의 것이었다.²⁰⁾ 이처럼 석주명의 초기 논문은 채집한 표본들을 그 즈음에 출간된 도감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들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분류학 연구를 시작한 초기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거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석주명은 이러한 작업을 해 나가면서 점차로 도감에 실린 내용과 자신이 채집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연구결과 같은 종으로 분류된 표본들이 도감에는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는 같은 종의 다양한 개체변이에 해당하는 표본들을 학자들이 신종으로 보고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개체변이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본을 채집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당시의 많은 학자들은 소수의 표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변이의 극단에 있는 개체가 발견되면 바로 신종 또는 신아종으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학명에 올리려는 학자들의 공명심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석주명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萬國命名規約’ 자체에도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덧붙였다. 명명규약에 따르면 ‘새로운 종을 발표할 때는 전형적인 하나의 수컷으로 기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일 연구자가 충분한 개체를 채집했다면 그 중에서 전형적인 수컷 개체 하나를 택하면 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두 마리밖에 채집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한 마리를 전형적 개체로 삼게 되고, 그에 따라 그 전형적 개체와는 상당히 다른 변이성을 나타내는 개체가 채집되면 이를 새로운 종으로 파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석주명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개체를 채집하여 개체변이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개체변이의 범위 내에 신종, 신아종, 신변종 등으로 기재된 것들이 포함될 경우 이들은 기존 종의 개체변이에 불과하므로 그 학명들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판단의 결과 석주명은 개체변이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쏟게 되었고, 1933년에 발표된 논문은 개체변이를 밝히는 연구의 첫 결실이었다.²¹⁾ 그는 이 논문에서 개성지방에서

19) 高塚豊次・石宙明, “朝鮮球場地方産蝶類目録”, *Zephyrus* 4(1932), 311-317쪽. 석주명은 이 논문을 보강한 속편을 1934년과 1937년에 같은 잡지에 발표하였다. *Zephyrus*는 九州帝大에서 발행하는 나비에 관한 전문 학술지로서 석주명은 해방 후에도 여기에 몇 편의 논문을 투고한 바 있다.

20) 石宙明, “開城地方의 蝶類”, 「朝鮮博物學會雜誌」 15호(1933), 64-72쪽. 이 논문은 「松京昆蟲研究會會報」에 발표되었던 “開城地方의 蝶類”를 보강한 것으로, 1942년 「朝鮮博物學會雜誌」에 속편이 발표되었다.

21) 石宙明, “朝鮮産蝶類ノ未記録種, 異常型及ビ「ウラギンヘウモン」ノ斑紋ノ變異性”, 「朝鮮博物學會雜誌」 15호(1933), 73-77쪽.

많이 발견되는 은점표범나비 460여 개체를 채집하여 학계에 보고된 아종들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조사한 표본들에는 중간적인 형질을 띠는 개체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늬(斑紋)의 변이 양상이 매우 다양해서 그것들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석주명은 그 동안 다른 아종으로 기재되었던 *Argynnis adippe musanna* Doi 등 3개의 아종은 본종인 *Argynnis adippe* Linné의 개체변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체변이를 밝힘으로써 同種異名(synonym)을 제거한다는 아이디어를 석주명이 처음으로 창안한 것은 아니었다. 후에 석주명이 한국산 나비의 연구사를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리치는 1893년과 다음해에 연속으로 출간된 *Butterflies from China, Japan, Corea*에서 이미 개체변이에 관해 논했으며, 개체변이를 중시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산 나비에 대해 22개의 동종이명을 정리하였다고 한다.²²⁾ 또한 일본의 어류연구 권위자였던 東京帝大의 타나카(田中茂穂)는 “석주명의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그가 ‘개체변이’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점으로, 1926년 말에 내가 주장했던 개체변이 중요성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석주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²³⁾ 하지만 이에 대해 석주명은 1950년에 완성한 유고 “韓國產 蝶類의 研究(第3報)”에서 자신이 처음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연구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그러한 연구방법론을 인식했으며, 타나카는 자신보다 나중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였다.²⁴⁾

석주명이 자신의 주장대로 순전히 독자적인 연구과정에서 개체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리치나 타나카 등 다른 학자들의 문헌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타나카가 개체변이의 중요성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1926년 말에 석주명은 카고시마고농에 재학중이었으며, 일본곤충학회회장을 지낸 오카지마로부터 체계적인 곤충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미 그 당시부터 개체변이가 분류학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그가 처음부터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히는 작업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개체변이의 의미를 자신의 채집·조사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힘으로써 잘못된 학명들을 제거하는 것을 연구의 중심 테마로 삼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34년 이후 논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개체변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량적 형질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석주명의 나비분류학에서 핵심적 연구도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22) 石宙明, “韓國產 蝶類의 研究史”, 7-8쪽, 119쪽.

23) S. Tanaka, “Foreword”,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viii쪽.

24) 石宙明, “韓國產 蝶類의 研究(第3報)”, 「韓國產 蝶類의 研究」(寶晉齋, 1972), 125-126쪽.

2) 중기의 연구(1934-1939): 방법론의 정립

1934년부터 1939년의 시기는 석주명식 나비분류학이 정립되고 학계에서 그것을 인정받게 되는 시기였다. 단순한 목록 작성에서 시작한 후 당시의 분류학이 지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히기 시작하던 그의 연구는 1934년에 발표된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1報)”를 기점으로 더욱 정교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 개체변이의 범위를 보일 수 있는 정량적인 형질로 앞날개의 길이, 뱀눈무늬의 수와 위치를 선택하고 이를 조사하여 도표화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석주명은 연속적인 변이라는 사실을 한층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방법은 석주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一報)”는 아종을 포함하여 7과 138종 16,016개체에 이르는 조선산 나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다.²⁵⁾ 이 논문에서 석주명은 각 종의 개체변이를 조사하여 그 동안 보고되었던 학명 중 180여 개를 동종이명으로 밝혀서 제거하였다. 그는 이 논문의 서두에 자신의 분류학 연구의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무릇 1종의 개체변이를 표로 나타내면 대체로 하나의 山을 형성하는데 그 하나의 산에 포함되는 명칭은 種, 亞種, 變種, 型, 異型의 어떤 것이든지 무의미한 것으로 내가 그것들을 정리한 것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고, 개체변이 내에 있어서 2개 이상의 山(변이의 경향)을 형성하면 편의상 form[型]이라 인정하였다. ... 그리고 2개 이상의 형의 극단의 개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변이는 연속된 것이다. 만약에 그 변이가 연속되지 않고 끊어지는 것이라면 別種 혹은 別亞種일 것이다.²⁶⁾

이 설명의 핵심은 연속적인 개체변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은 같은 종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규분포곡선의 정점이 둘 이상이 되더라도 바로 다른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잠정적인 型(form)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두 型을 다른 종·아종으로 판단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변이의 연속성 여부이다. 즉 개체변이 범위의 극단에 있는 것들 사이에는 분명 다른 종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러한 차이가 연속적인 변화의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면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같은 종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속적인 변이를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이 점이 바로 석주명의 중기 연구를 특징짓는 요소가 된다.

석주명이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一報)”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개체변이를 나타내는 형질

25) 石宙明,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一報)”, 「鹿兒島高等農林學校開校二十五周年記念論文集」前篇(1934), 631-784쪽.

26) 石宙明,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一報)”, 632쪽.

로 조사한 것은 날개에 있는 독특한 무늬나 띠 등의 형태 또는 색깔 등 정상적인 형질들이었다. 이러한 형질들은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연속적인 변이라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이는 데는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체변이를 정량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형질을 채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주명이 찾아낸 것이 앞날개의 길이, 뱀눈나비과 및 호랑나비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뱀눈무늬의 위치와 수라는 형질이었다. 이 형질들은 객관적인 통계처리가 가능한 것들로서 도표화를 통해 변이의 정규분포곡선을 그려낼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개체변이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배추흰나비의 변이연구’이다. 석주명은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1報)”와 별도로 발표한 세 편의 논문에서 모두 167,847개체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배추흰나비의 변이를 밝혔다.²⁷⁾ 그는 채집된 모든 표본의 암·수를 구별하고 각각의 형질 변이를 살폈는데, 조사한 변이의 내용은 날개의 형태, 무늬나 띠의 색채·모양·위치 그리고 앞날개의 길이 등이었다. 특히 앞날개의 길이는 mm 단위로 측정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 및 변이계수를 구하고 성에 따른 비율도 구한 다음 이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석주명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암·수 모두 날개 형태와 여러 무늬에 대한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異型, 畸型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미중이던 200여 쌍을 채집하여 관찰한 결과 배우자간의 몸의 크기 차이가 상당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이들 개체들이 상당한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식이 가능한 동일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앞날개의 길이를 측정한 표를 통해 결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즉 한반도 각지에서 봄에서 가을까지 다양한 시기에 걸쳐 채집된 16만이 넘는 개체를 조사한 결과 최소 17mm에서 최대 34mm로 두 배의 차이가 있었으나 암·수 모두 27mm에서 하나의 정점이 형성되는 정규분포곡선이 형성됨을 보여준 것이다(<표 1>, <그림 1> 참고). 이는 그가 조사한 모든 개체가 한 종의 개체변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그 동안 크기, 날개의 형태, 무늬의 양상에 따라 다른 종·아종·이형이라고 보고된 20여 개의 학명들이 실제로는 배추흰나비의 평범한 개체변이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²⁸⁾

27) 石宙明,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1報)”, 670-672쪽: “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 (附)朝鮮産畸型のモンシロテフ”, 「動物學雜誌」 48권 7호(1936), 337-343쪽: “再び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 「動物學雜誌」 49권 10호(1937), 329-340쪽: “三たび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 「動物學雜誌」 54권 6호(1942), 219-229쪽. 이 논문들에서 배추흰나비의 학명은 *Pieris rapae* Linné로 표시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Artogeia rapae* Linné를 사용한다. 이처럼 屬이 바뀌는 것은 분류학의 발달에 따라 유연관계가 밝혀지면서 새롭게 정리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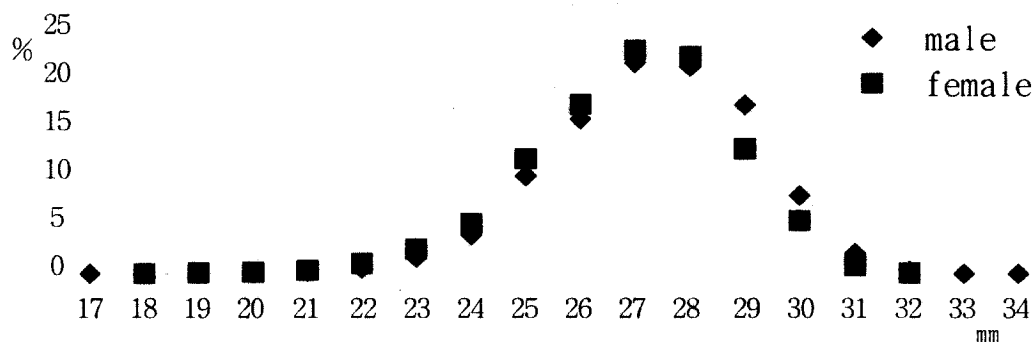
<표 1> 배추흰나비의 앞날개 길이 측정표

mm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計
♂	1	6	25	61	242	616	1882	4423	11126	17636	24029	23615	19263	8858	2353	335	12	1	114484
♀	-	5	25	76	193	550	1309	2661	6143	9060	11921	11513	6626	2799	442	40	-	-	53363

總計 167,847

출처: 石宙明, “三たび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 「動物學雜誌」 54권 6호(1942), 225쪽.

<그림 1> 배추흰나비의 앞날개 길이의 변이 곡선



출처: 위의 변이 곡선은 첫째 논문의 변이 곡선을 참고하고 <표 1>를 근거로 하여 내가 새로 작성한 것이다. 석주명이 발표한 배추흰나비에 관한 3편의 논문 중 첫째 논문에만 변이 곡선이 들어있고 둘째 논문부터는 같은 양상이라는 이유로 생략되었다.

정량화 가능한 형질로 선택된 또 다른 형질인 뱀눈모양 무늬의 수와 위치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조사한 것은 ‘굴뚝나비의 변이연구’였다. 석주명은 1937년의 “朝鮮産 굴뚝나비의 變異研究”와 유고인 “韓國産 蝶類의 研究(第3報)”에 모두 34,235개체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를 실었다.²⁸⁾ 그는 이 논문에서 표본들의 암·수를 구별하여 앞날개의 길이를 측정함과

28) 20여 개의 동종이명 목록은 石宙明, “三たび朝鮮産モンシロテフの變異研究”, 219쪽을 참고할 것.

29) 石宙明, “朝鮮産ジャノメテフの變異研究”, 「動物學雜誌」 49권 11호(1937), 369-375쪽: “韓國産 蝶類의 研究(第3報)”, 149-150쪽. 굴뚝나비의 학명도 *Satyrus dryas* Scopoli에서 *Eumenis dryas*

동시에 앞뒷날개 바깥쪽과 안쪽에 나타나는 뱀눈무늬를 위치별로 하나하나 조사하여 무늬의 양상을 도표화하였다.³⁰⁾ 그 결과 굴뚝나비의 뱀눈무늬는 하나도 없는 것에서부터 많게는 12개 까지 있으며,³¹⁾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 모두 68가지 타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2> 참고). 그리고 무늬의 갯수에 따라 정리한 결과 암·수 모두 6개를 가진 것이 가장 많았으며, 앞날개의 길이는 수컷과 암컷이 각각 30mm, 35mm에서 정점이 나타나는 정규분포곡선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크기나 무늬의 양상에 따라 그 동안 아종으로 보고되었던 10여 개의 학명은 모두 무의미한 동종이명임이 밝혀졌다.³²⁾

위의 논문들에서 나타난 석주명의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역에서 다수의 개체를 채집하여 같은 종으로 추정되는 무리의 형태·무늬의 양상을 조사하여 그 변이가 연속적인 것으로 보이면 일단 동일종이라는 가설을 상정한다. 그리고 교미중인 개체를 조사하여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날개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점이 하나인 연속적인 정규분포곡선을 얻으면 동일종이라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 뱀눈나비과의 경우에는 뱀눈무늬라는 증거가 덧붙여진다. 이렇듯 여러 단계의 가설 확인 작업을 거쳤으므로 설사 앞날개 길이에서 두 개의 정점이 나타난다 하여도 바로 다른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잠정적인 형으로 본 것이다. 즉 그는 단순히 날개 길이 하나만을 측정하여 개체변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나 무늬, 띠 등 여러 가지 형질을 대상으로 개체변이의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정량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앞날개의 길이를 선택하여 그 사실을 더욱 정교화시켰던 것이다.

석주명은 1937년에 발표한 글에서 위와 같은 연구태도를 지닌 자신을 ‘lumper’라고 평하였다.³³⁾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분류를 할 때 가급적 작게 나누는 사람과 크게 나누려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를 ‘splitter’(세분론자), 후자를 ‘lumper’(통합론자·종합론자)라 칭한다. 즉 세분론자는 조사한 개체가 어느 정도의 차이만 보이면 새로운 종·아종명을 설정하며, 통합론자는 가능한 이미 인정된 체계에 포함시켜 분류하려 한다. 석주명이 보기에 당시의 동식물분류학자 대

Scopoli를 거쳐 현재는 *Minois dryas* Scopoli로 바뀌었다.

30) 나비의 날개는 여러 개의 날개맥(翅脈)에 의해서 많은 날개방(翅室)으로 구분되며, 이 방과 맥에는 편의상 일련번호로 된 명칭을 붙인다. 석주명은 각 날개방에 나타나는 뱀눈무늬에 알파벳 부호를 부여하여 무늬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그림 2>를 참고할 것.

31) 석주명이 논문에 기록한 무늬의 양상은 한 쪽의 날개만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좌우대칭을 고려하면 실제 뱀눈무늬의 수는 2배가 된다.

32) 10여 개의 동종이명 목록은 石宙明, “朝鮮産ジャノメテフの變異研究”, 370쪽을 참고할 것.

33) 石宙明, “SplitterとLumper”, 「朝鮮博物學會會報」2호(1937), 15-16쪽.

<표 2> 굴뚝나비의뱀눈무늬변이표

1	O	O		O	O				O			O			O			O	8		1	1
2	O	O			O				O			O			O			O O	8		1	1
3		O	O	O	O	O			O			O	O	O	O	O		O	12		1	1
4		O	O	O	O				O			O	O	O	O			O O	11		2	2
5		O	O	O	O				O			O	O	O	O			O	10		3	3
6		O	O	O	O				O			O	O	O	O				9		1	1
7		O	O		O				O	O		O	O		O			O O	10		1	1
8		O	O		O				O			O	O		O			O O	9		1	1
9		O	O		O				O			O	O		O			O	8		2	2
10		O	O		O				O			O	O		O				7		1	1
11		O	O		O				O			O			O			O	7		1	1
12		O		O	O	O			O			O		O	O			O O	10		1	1
13		O		O	O	O			O			O		O	O			O	9		1	1
14		O		O	O	O			O			O			O			O O	9		1	1
15		O		O	O				O	O		O		O	O			O O	10		2	2
16		O		O	O				O			O	O	O	O			O O	10		1	1
17		O		O	O				O			O		O	O			O O	9		5	5
18		O		O	O				O			O		O	O			O	8	1	11	12
19		O		O	O				O			O		O	O				7		2	2
20		O		O	O				O			O			O			O O	8		20	20
21		O		O	O				O			O			O			O	7		10	10
22		O		O	O				O			O			O				6		5	5
23		O			O	O			O	O		O	O	O	O	O		O O	12		1	1
24		O			O	O			O	O		O	O		O	O		O O	11		1	1
25		O			O	O			O	O		O			O	O		O O	10	1	6	7
26		O			O	O			O	O		O			O			O O	9		11	11
27		O			O	O			O	O		O			O			O	8		1	1
28		O			O	O			O			O			O	O		O O	9	2	19	21
29		O			O	O			O			O			O	O		O	8	2	1	3
30		O			O	O			O			O			O	O		O	8		1	1
31		O			O	O			O			O			O			O O	8	1	33	34
32		O			O	O			O			O			O			O	7		10	10
33		O			O	O			O			O			O			O	7		1	1
34		O			O	O			O			O			O				6		5	5
35		O			O	O						O			O	O	O	O O	9		1	1
36		O			O	O						O			O	O			6	1	1	2
37		O			O	O						O			O				5		2	2
38		O			O				O	O					O			O	7	1		1
39		O			O					O	O				O	O		O O	9		1	1
40		O			O					O	O				O			O O	8	4	100	104
41		O			O					O	O				O			O	7	1		1
42		O			O					O	O				O			O	7		2	2

43		O			O				O			O								6		1	1
44		O			O				O	O	O	O						O		8		1	1
45		O			O				O	O	O	O						O	O	8	2		2
46		O			O				O	O	O	O						O		7	2	2	4
47		O			O				O		O	O						O	O	8		4	4
48		O			O				O		O	O						O		7		2	2
49		O			O				O			O	O					O	O	8	2	6	8
50		O			O				O			O	O					O		7	1	2	3
51		O			O				O			O					O	O	O	8	2	1	3
52		O			O				O			O					O	O		7		1	1
53		O			O				O			O						O	O	7	798	1736	2534
54		O			O				O			O						O		6	5144	1863	7007
55		O			O				O			O						O		6	2	69	71
56		O			O				O			O								5	491	810	1301
57		O			O				O			O	O					O	O	7		1	1
58		O			O				O			O						O	O	6	9	13	22
59		O			O				O			O						O		5	290	40	330
60		O			O				O			O						O		5		12	12
61		O			O				O			O								4	477	263	740
62		O							O			O								3	1		1
63				O					O			O						O		5	1		1
64				O					O			O								4	1		1
65				O					O			O						O		4	1		1
66				O								O								2	1		1
67									O			O						O		4	1		1
68																				0	1		1
																				總計	7241	5098	12339

출처 : 石宙明, “朝鮮産 ジャノメテフの變異研究”, 370-3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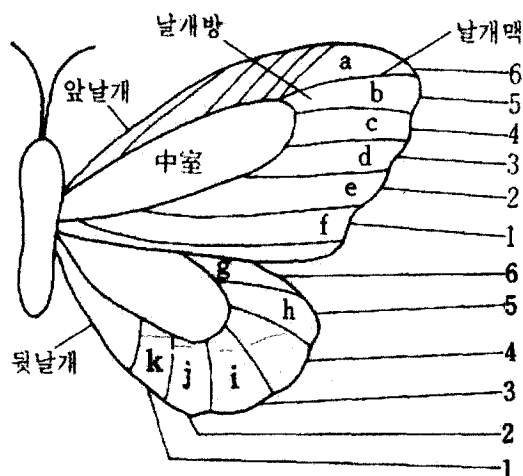
부분은 세분론자의 방법론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수년간에 걸쳐 나비만을 다수 채집·조사한 결과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통합론자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수의 개체를 채집하여 변이곡선을 만들어 보면, 종·아종이라고 보고된 많은 것들이 연속적인 변이곡선 내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학자들이 장차 변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통합론자의 방식이 올바른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듬해 발표한 글에서 그 동안 개체변이를 무시하여 빚어진 잘못된 분류학의 예를 들며 표본의 同定(identification)과 발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³⁴⁾

이처럼 전형적인 통합론자였던 석주명의 나비분류학은 *Synonymic List*의 출간으로 그 정점

34) 石宙明, “標本の同定と發表”, 「朝鮮博物學會會報」4호(1938), 28쪽.

을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은 10여 년에 걸친 변이연구를 일단락짓는 것이자, 그의 연구성과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 역작이었다. 1938년 스나이더의 주선으로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회'(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는 석주명에게 조선산 나비에 관한 총목록의 작성을 요청하였다.³⁵⁾

<그림 2> 굴뚝나비의 뱀눈무늬 부호



출처: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아카데미서적, 1989), 73쪽에 실려 있는 그림을 石宙明, “朝鮮産ジャノメテフの變異研究”, 「動物學雜誌」 49권 11호(1937), 370쪽을 근거로 하여 굴뚝나비에 맞게 약간 고친 것이다.

이에 석주명은 학교를 쉬고 넉 달 동안 東京帝大의 동물학회 도서관에서 작업하여 1939년 3월에 탈고하였고, 이는 다음해 뉴욕에서 인쇄되어 서울에서 발간되었다.³⁶⁾ 이 책에서 그는 조선산 나비를 255종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종에 대하여 그 동안 발표되었던 모든 연구 문헌을

35) 석주명은 1937년에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회'의 잡지인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발표하기 위해 조선산 나비에 관해 150쪽 가량의 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학회의 요청으로 이 논문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고 *Synonymic List*의 기초가 되었다. 석주명이 1937년에 왕립 아시아학회의 청탁으로 논문을 집필중이었다는 사실은, “科學朝鮮에 朗報—英國王立協會機關誌에 朝鮮産蝶類紹介”, 「朝鮮日報」 1937년 3월 27일에서 확인된다.

36) 석주명은 *Synonymic List*의 원고를 1939년에 완성하였으며 책의 표지에도 1939년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 인쇄와 발간은 1940년에 이루어졌다. 이 책의 발간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85-86쪽을 참고할 것.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³⁷⁾ 그리고 일부 미기록종과 함께 212개에 달하는 동종이명의 목록을 덧붙였다. 서문에서 그는 “지금까지 조선산 나비는 많은 세분론자에 의해 분류되었으나 나는 통합론자로서 다시 분류하여 이 목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³⁸⁾ 이 책의 제목이 “Synonymic List”로 되었다는 사실은 석주명의 연구가 동종이명(synonym)의 제거를 주된 과제로 삼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4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한국산 나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참고 도서가 되었다.

이 책에는 오까지마, 타나카의 서문과 일본 곤충학계의 태두이자 세계 곤충 분포구를 7개구로 나눈 ‘에자끼 라인(Esaki Line)’의 제창자였던 九州帝大 에자끼(江崎悌三)의 후기가 실려 있다. 오까지마는 석주명이 학생시절부터 보인 곤충학에 대한 열의와 능력을 지적하고 “석주명의 정확성 덕분에 조선산 나비의 올바른 이름과 산지를 알고자 하는 연구자는 큰 도움을 받을 것이며, 그 동안 나온 이 분야의 저작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 책을 주저없이 추천한다”고 밝혔다.³⁹⁾ 또한 에자끼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한 마리의 나비가 어떤 종에 속하는지 전문가들조차 알아맞히기가 어려워진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지식이 쌓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에의 공헌보다는 오히려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수많은 연구업적(?)때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석주명에 의해 이룩된 이 책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이룩된 어떤 저작보다도 이해하기 쉽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책이다.… 지금까지의 어느 나비 연구가보다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극찬하였다.⁴⁰⁾

여기에서 에자끼가 지적한 ‘혼란을 야기시킨 연구업적’이란 그 동안 발표된 수많은 동종이명을 지칭한다. 석주명의 “韓國產 蝶類의 研究史”에 따르면, 한국산 나비에 명명되었던 동종이명은 모두 921개에 달하는데, 이것들 중 마쓰무라(松村松年)가 명명한 것이 166개로 가장 많았다.⁴¹⁾ 즉 마쓰무라는 ‘혼란을 야기시킨 연구업적’을 가장 많이 낸 인물이었다. 北海島帝大 교수로서 일본 곤충학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그는 1926년부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Insecta Matsumurana*라는 학술지를 간행하여 각지에서 채집되어 北海島帝大의 곤충학 박물관으로 보내진 표본들로부터 신종 곤충들을 조사·발표하였다.⁴²⁾ 그는 이 학술지를 통하여 ‘서양의

37) 석주명은 1950년의 논문에서 *Synonymic List*에 기록된 255종도 다시 정리하면 234종이 된다고 밝혔다. 石宙明, “韓國產 蝶類의 研究史”, 45쪽.

38) D. M. Seok, “Preface”,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xii쪽.

39) G. Okazima, “Foreword”,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v쪽.

40) T. Esaki, “Postscript”,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407쪽.

41) 石宙明, “韓國產 蝶類의 研究史”, 119쪽.

42) 일본에서 본격적인 곤충학 연구가 시작된 것은 明治 중기 이후로 정확히는 1896년부터라고 간주된다.

1896년은 바로 마쓰무라의 첫 저서인 「害蟲驅除全書」가 간행된 해로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곤충연구

린네, 동양의 마즈무라'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많은 학명을 만들어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한 두 마리의 표본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몇 줄로 기재하여 신종 내지는 신아종이나 新型 등으로 명명하는 형식이 많았다. 예를 들어 1927년에 그가 발표한 “조선의 나비 목록, 새로운 종·아종·이형의 기재를 덧붙임”이라는 논문에는 조선산 나비 177종이 열거되었고 그와 함께 5개의 신종, 10개의 신아종, 3개의 이형이 기록되었다.⁴³⁾ 그러나 그가 새로 명명한 18개의 학명 중 *Luehdorfia puziloi coreana* Matsumura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종의 단순한 개체변이로서 무의미한 동종이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석주명과 예자끼 등에 의해 밝혀졌다.⁴⁴⁾ 이처럼 北海島帝大를 곤충분류학의 연구중심지로 삼아 조선·대만 등의 식민지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보내온 소수의 표본에 근거하여 새로운 학명들을 만들었던 마즈무라의 연구태도는 석주명이 지적인 세분론자의 전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마즈무라식의 분류학은 최소한 조선산 나비에 대해서만큼은 석주명에 의해 수많은 오류를 드러냈다. 마즈무라가 명명한 동종이명 166개 중에서 150개는 석주명이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마즈무라는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석주명의 지적이 정확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사실상 마즈무라를 비롯하여 당시의 학자 어느 누구도 조선산 나비에 대해 석주명보다 많은 표본을 관찰한 경우가 없었으므로 그의 연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석주명은 1939년의 글에서 자신이 “1934년의 논문에서 179개의 동종이명을 학계에서 말소시켰는데 아직까지 학계에 아무 항의도 없다는 것에서 과거의 학자가 얼마나 개체변이를 擴大視하고 많은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⁴⁵⁾ 이와 관련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본인 학자 나카무라(中村倭)가 193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청띠 신선나비를 계절적 차이에 근거하여 5아종으로 분류하자 석주명은 그에게 단순한 개체변이에 불과하므로 아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알려주면서 필요하면 조선산 표본을 풍부히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나카무라가 바로 표본을 요청하였고 석주명은 약속대로 표본을 보냈다. 이후 나카무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석주명은 1936년 가을 東京에 갔던 길에 그를 만나 자신의 의견에 찬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였다고 술회하였다.⁴⁶⁾

이처럼 다양하고 연속적인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힘으로써 한국산 나비의 정확한 분류학을

가 급격히 고양되었다고 한다. 野村健一, 「昆蟲學入門」(東京: 北隆館, 1952), 11-14쪽.

43) S. Matsumura, “A List of the Butterflies of Corea, with Description of New Species, Subspecies and Aberrations”, *Insecta Matsumurana* vol. 1 (1927), 159-170쪽.

44) 石宙明, “韓國産 蝶類의 研究史”, 15쪽.

45) 石宙明, “六十萬種の 動物界의 奇現象”, 「朝光」 1939년 6월호, 191-197쪽.

46) 石宙明, “韓國産 蝶類의 研究(第3報)”, 186-187쪽.

추구했던 석주명의 연구는 당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석주명은 오까지마, 타나카, 에자끼 외에도 쥐과 동물의 권위자인 臺北帝大의 아오끼(青木文一朗), 京都帝大의 도시다(德田御稔) 등이 자신의 연구를 지지했다고 밝혔다.⁴⁷⁾ 그리고 석주명의 연구는 이후 한국과 일본의 곤충학 서적에도 자주 인용되었다.⁴⁸⁾ 또한 석주명의 사후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九州大學의 시로오즈(白水隆)는 흑백알락나비의 아종으로 *Hestina japonica seoki*라는 학명을 발표하였으며,⁴⁹⁾ 關西醫科大學의 시바타니(柴谷篤弘)는 네발나비과에 *Seokia*라는 新屬을 설정하여 홍줄나비의 학명을 *Seokia pratti*로 하여 석주명의 성을 헌정하였다.⁵⁰⁾

3) 후기의 연구(1939-1950): 분포연구까지

1939년 *Synonymic List*를 완성한 후부터 1950년까지는 석주명의 연구활동의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는 이 시기에 11년 동안 연구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송도중학교를 사직하고 경성제대 부설 생약연구소와 농사시험장을 거쳐 해방 후 과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등 이전의 안정된 생활과는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연구활동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1939년 이후로 한국산 나비의 변이에 대해 발표한 논문의 숫자가 이전보다 조금씩 줄어들다가 1942년을 고비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던 것이다. 이는 일제 말기의 폭압적 전시체제 하에서 전쟁과 직접 관련된 일부 분야를 제외한 사회 전반의 학문 연구활동이 위축되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형적인 양의 감소가 반드시 그의 연구가 부진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변이연구가 종합·정리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와 함께 관심의 영역이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결과였다.

*Synonymic List*의 완성 이후로도 1934년 이래의 개체변이 범위를 밝히는 석주명의 연구방법론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변이연구의 대상이 되는 종 수와 각 종의 조사 표본 수는 계속 늘어갔다. 이러한 변이연구의 누적을 통해 그의 나비분류학은 자신의 표현대로 ‘정리의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⁵¹⁾ 그는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단편적인 소논문보다

47) 石宙明, “韓國產 蝶類의 研究(第3報)”, 126쪽.

48) 金憲奎는 「昆蟲學新講」(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61), 47-48쪽에서 ‘무늬 변이’의 저명한 예로서 석주명의 굴뚝나비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여 설명하였으며, 安松京三 등이 지은 「應用昆蟲學」(東京: 朝倉書店, 1955), 33쪽에는 석주명이 배추흰나비의 변이연구에서 작성했던 정규분포곡선 그래프가 개체변이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또 野村建一の 「昆蟲學入門」, 43-45쪽에는 ‘배추흰나비의 변이연구’와 ‘굴뚝나비의 변이연구’의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49)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282쪽.

50) 柴谷篤弘, “石宙明”, 13쪽.

는 한국산 나비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논문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로 1942년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二報)”가 발표되었으며,⁵²⁾ 1950년에 완성된 유고 “韓國産 蝶類의 研究(第3報)”가 그 뒤를 이었다. 1934년의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一報)”와 위의 2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나비 표본은 모두 8과 211종 201,367개체에 이른다. 그는 이러한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산 나비의 동종이명 921개 중 90%가 넘는 844개의 학명을 정리하였다.⁵³⁾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힘으로써 잘못된 학명을 정리했던 석주명식의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개체를 채집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가 20여 년에 걸친 연구생활에서 조사한 나비는 모두 75만 개체에 이른다고 한다.⁵⁴⁾ 이 표본 중 상당수는 송도고보의 학생들이 채집한 것이었다. 석주명은 송도고보 재직 시절 학생들에게 방학 과제로 200여 마리씩의 나비를 채집하도록 하였다. 물론 분류학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신종이나 미기록종 등을 채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개체변이를 조사하는 연구에는 학생들이 채집한 표본 하나 하나가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채집하는 시기는 대개 여름 방학이고, 출신지가 도회지인 경우가 많아 그들의 채집은 제한되어 있었다. 때문에 석주명은 春秋型이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벽지를 다니며 채집을 하였으며, 각지에 조수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실제 그는 제주도에서부터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지역을 다니며 채집활동을 펼쳤는데(<그림 3> 참고), 자신의 채집 여행에 대해 1949년에 발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만 다닌 것을 지도 위에 表한대로 꽤 복잡한 것이 된다. 사실 나는 백만분지일의 지도 위에 나의 다닌 길을 赤線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거의 거미집 모양으로 되어 간다. 아직 몇 곳이 파손된 거미집 모양이니 몇 해 후에 송하지 않은 거미집 모양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 몇 해 후 赤線의 거미집이 완성된 뒤에는 이 蝶類分布圖를 보고 채집지를 택하여 채집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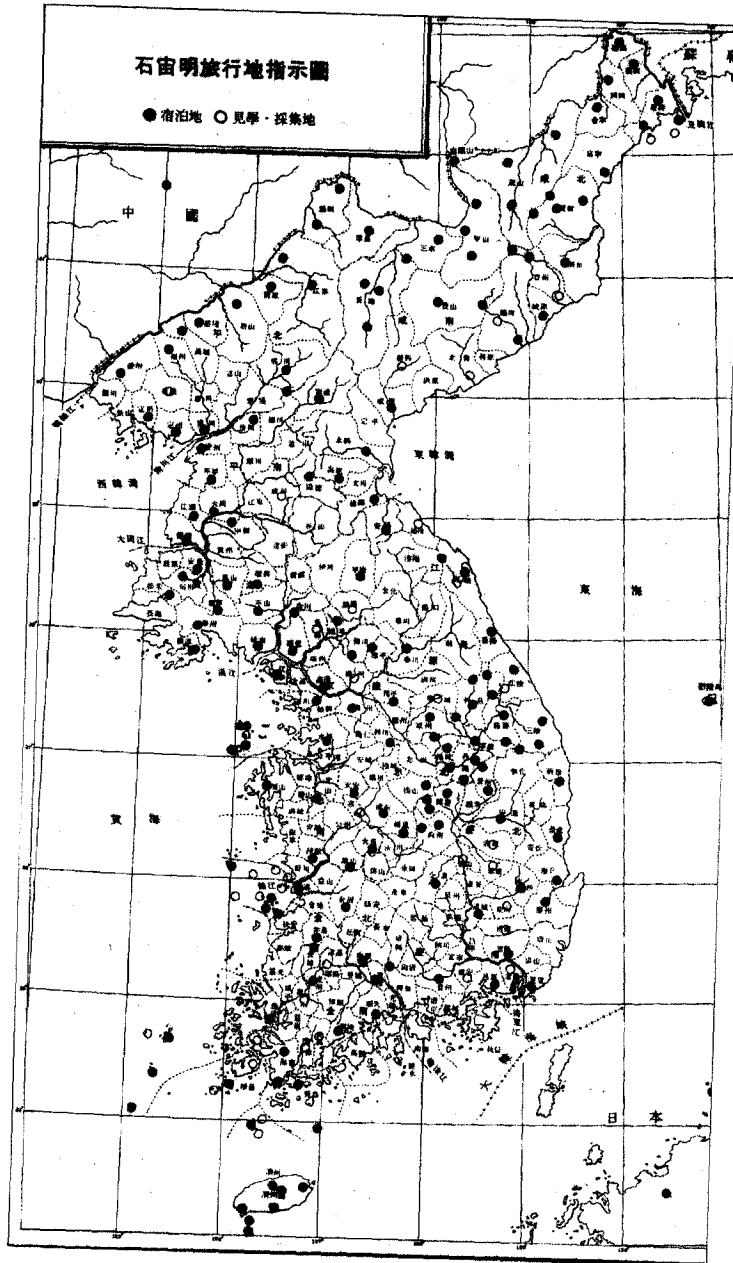
51) ‘정리의 시대’란 석주명이 1940년부터 1950년까지의 한국산 나비 연구의 양상을 지칭했던 표현이었는데, 이는 그 자신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註11을 참고할 것.

52) 石宙明, “朝鮮産 蝶類의 研究(第二報)”,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5권 16호(1942), 5-95쪽.

53) 石宙明, “韓國産 蝶類의 研究史”, 119쪽. 물론 석주명의 연구도 완벽한 것은 아니어서 이 844개의 학명 중에 현재 복원되어 인정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줄흰나비(*Artogeia (Pieris) napi* Linné)와 큰줄흰나비(*Artogeia (Pieris) melete* Ménétrières)를 같은 종으로 파악하여 큰줄흰나비를 동종이명으로 발표하거나, 석물결나비(*Ypthima amphithea* Ménétrières)를 물결나비(*Ypthima amotschulsky* Bremer et Grey)의 동종이명으로 정리하고, 황오색나비(*Apatura metis* Fryer)를 오색나비(*Apatura ilia* Denis et Schiffermüller)의 동종이명으로 판단했던 것 등은 석주명의 실책이었다. 특히 석물결나비의 ‘석’은 석주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이름인데 그 나비의 학명은 바로 석주명이 동종이명으로 학계에서 제거한 것이었다.

54)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62쪽.

<그림 3> 석주명 여행지 지도



출처: 石宙明, 「韓國產 蝶類 分布圖」(寶晉齋, 1968), 1쪽.

55)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216-217쪽.

이처럼 석주명은 자신이 채집 다닌 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동시에 나비를 채집한 장소를 지도에 기록하면서 분포연구도 겸하였다. 각 종의 분포 상태를 기록하여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구하여 서식 범위를 설정하고 거기에 그 지역의 기온, 강수량 등의 자료를 덧붙인다면 특정 종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연구는 생태학·생물지리학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석주명의 조선산 나비에 대한 분포연구는 1939년부터 변이연구 논문의 뒤에 분포지도로 덧붙이는 형식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분포연구가 실린 첫 논문은 “朝鮮産 봄처녀나비의 變異研究”로서 이 논문의 뒷부분에는 3장의 도판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마지막 장이 봄처녀나비의 분포 상태가 기록된 지도이다.⁵⁶⁾ 이 지도에는 그 동안 문헌상에서 채집되었다고 보고된 장소와 석주명 자신이 실제로 채집한 장소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포연구가 석주명의 후기 나비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Synonymic List*의 완성으로 그간의 변이연구가 일단락 되자 분포연구라는 영역으로 관심을 확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한 분포연구와 변이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형태에만 치중하는 분류학에서 벗어나 유연관계를 고려하여 계통을 세우고 환경과 분포의 관계까지도 밝혀내는 곤충학을 추구하려 하였다.⁵⁷⁾

비록 그러한 연구를 완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석주명이 수행한 분포연구의 진가는 「韓國産 蝶類 分布圖」⁵⁸⁾에서 충분히 발휘되었다. 여기에는 250여 종의 한국산 나비가 한국과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500여 장의 지도가 들어있다. 각 종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해당 종을 채집한 위치가 하나하나 표시된 한국지도와 그가 세계 각지의 학자와 표본, 학술 자료를 교환하여 얻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나비가 발견된 지역을 표시한 세계지도가 한 장씩 담겨있다(<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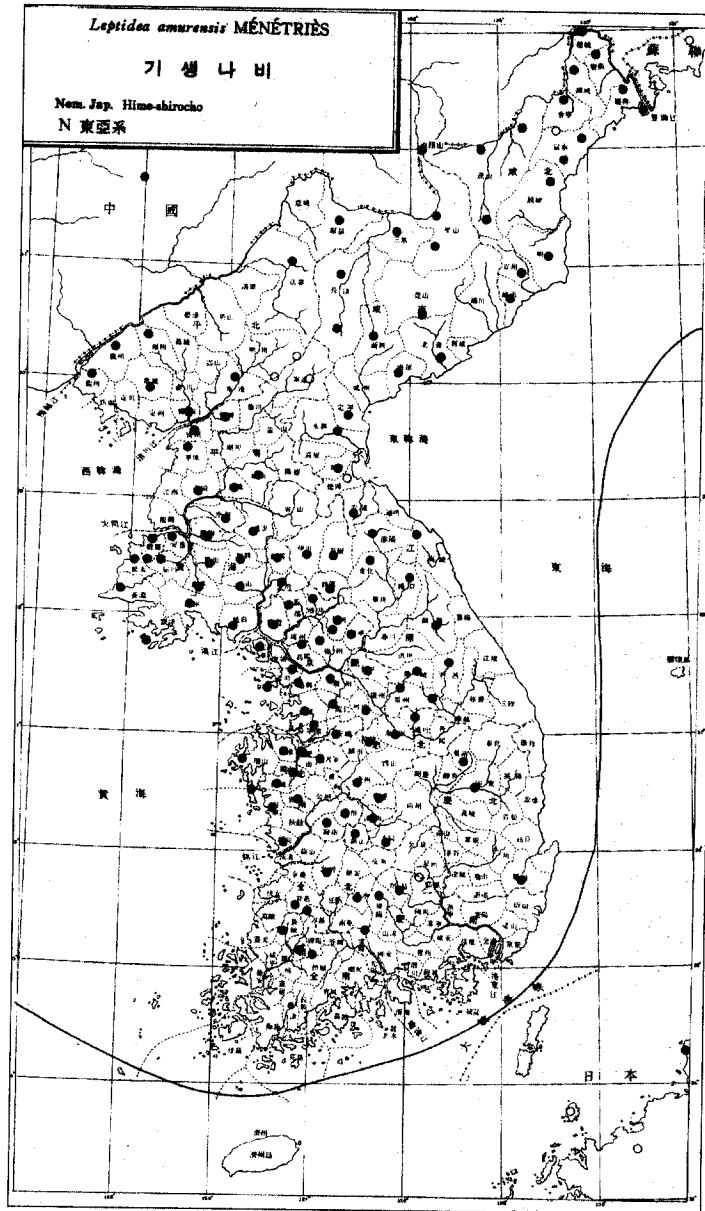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석주명은 1939년 이후로 변이연구와 함께 분포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이 두 가지 연구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변이연구를 위해서는 다수의 개체를 채집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분포 양상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연구보다 분포연구는 훨씬 넓은 범위의 자료 축적을 필요로 한다. 변이연구는 특정 지역에서 한 종의 나비를 다수 채집한 결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분포연구는 한 지역에서만 채집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때문에 1939년부터 분포연구를 담은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1929년부터 시작하여 10여 년에 걸친 채집·연구의 결과로 조선산 나비의 분포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석주명

56) 石宙明, “朝鮮産ヒメヒカゲの變異研究”, 「關西昆蟲學會報」8호(1939), 72-80쪽.

57) “書齋訪問記—世界的 나비學者 石宙明氏篇”, 「週刊서울」60호(1949), 9쪽.

58) 石宙明, 「韓國産 蝶類 分布圖」(寶晉齋, 1973). 이 책은 석주명의 유고로 1950년 당시 거의 완성된 상태였으나 6·25의 발발과 뒤이은 그의 죽음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1973년에야 출판되었다.

<그림 4> 분포연구의 예—기생나비



출처: 石宙明, 「韓國產 蝶類 分布圖」, 388쪽.

- 표시는 석주명이 보유하고 있는 표본의 채집 장소이며, ○ 표시는 문헌에서 확인된 장소이고 실선은 분포경계선이다.

의 조사 자료가 축적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그가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연구에서 분포연구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것은 방대한 개체의 채집을 기본으로 하는 석주명식 분류학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라 할 수 있다.

4) 성공의 원동력: 최선의 연구방법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석주명은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나비의 변이·분포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가 남다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앞의 논의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듯이 이는 석주명이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연구방법론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미 50여 년의 연구 성과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서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식민지인 조선에서 보내주는 소수의 표본만으로 쌓아 올린 마쓰무라식의 분류학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조선산 나비라는 한 분야에만 집중하고, 많은 수의 개체를 채집하여 개체변이의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잘못된 연구들을 수정해 나갔던 석주명의 접근법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체변이의 범위를 규명하는 연구의 가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업에는 다수의 개체를 채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석주명은 20여 년 동안 조선산 나비에만 매달려 전국적인 채집 여행을 다니며 무려 75만 개체에 이르는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그 전체를 채울 수 있었는데, 75만 개체는 20년 동안 매일 100여 개체 이상을 살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가 이처럼 많은 수의 표본을 연구재료로 삼을 수 있었던 데에는 송도고보의 교사로써 학생들의 표본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방대한 표본의 조사에 기초한 그의 연구결과로 무분별하게 명명된 다수의 학명들이 제거되어 250여 종에 이르는 조선산 나비의 학명이 정리되고, 그 분포까지도 알려짐으로써 조선산 나비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석주명의 연구방법은 지극히 소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현재의 수량통계분류학에 따르면 개체변이의 정규분포곡선을 형성하는 데는 1,000개체 정도의 표본이면 충분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정밀한 표본 추출의 경우 20-30여 표본으로도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힐 수 있다고 한다.⁵⁹⁾ 하지만 이러한 통계학적 지식을 생물분류학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킨 논의는 서구 학계에서도 193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⁶⁰⁾ 때문에 석주명이

59) 인터뷰: 신유향 (1996년 2월 5일).

활동했던 당시의 분류학 수준에서는, 그리고 통계학을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그의 처지에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개체를 모집하는 것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러한 연구방법의 추구에는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이지만 그는 다른 연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표본을 조사하는 열의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 놓았던 것이다.

석주명은 1937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구활동의 조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유로운 시간’, ‘윤택한 경비’, 그리고 ‘정진 노력’을 제시하였다.⁶¹⁾ 첫째 조건인 ‘연구시간’은 송도고보의 교사로서 수업 외 대부분의 시간을 박물관 표본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이 있던 박물관과 교실이 있던 본관과의 왕복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학교측에 요청하여 자신이 맡은 학급을 박물관으로 옮겼으며, 집에서도 야박하다는 불평이 나올 만큼 철저한 시간 관념으로 연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나갔다. 두 번째의 ‘연구경비’는 경제적으로 다소 풍족한 편이었던 집안의 도움과 자신의 월급 상당 부분을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몇 기관에서 받았던 재정 지원과 그의 연구를 지지한 인사들의 개인적 후원도 ‘연구경비’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⁶²⁾ 하지만 그가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하는 데 그같은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세 번째 조건인 ‘정진 노력’이 종합론자로서 석주명의 연구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료를 정리하느라 새벽 두시 전에는 자본 일이 없으며,”⁶³⁾ “한 줄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5만 마리의 나비를 만져 본 일이 있다”⁶⁴⁾는 그의 회고는 그가 지닌 ‘정진 노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석주명이 조선산 나비분류학에서 거둔 연구성과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식민지의 중등학교 교사라는 자신의 처지에서 가능했던 최선의 연구방법과 그를 뒷받침한 남다른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던 것이다.

60) E. Mayr, E. G. Linsley, & R. L. Usinger, *Methods and Principles of Systematic Zo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3), 125-126쪽.

61) “科學朝鮮에 朗報”, 「朝鮮日報」 1937년 3월 27일.

62) 석주명은 1933년 하바드대학 비교동물학 박물관의 지원, 1936년 아메리카 자연사 박물관의 지원 외에 1938년 日本學術振興會에 논문이 통과됨으로써 ‘국고’에서도 매년 연구비를 보조받았다. “나비學者 石宙明氏—日本學術振興會에 論文이 通過되어 國庫에서 研究費支給을 決定”, 「朝鮮日報」 1938년 11월 19일. 그는 이 보조로 1939년 “資料 支那及び蒙古産蝶類の新產地”, 「動物學雜誌」 51권 9호(1939), 658쪽을 시작으로 1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송도고보의 교장이었던 스나이더와 金俊玉 등은 석주명에게 개인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63) “學究의 辯”, 「태양신문」 1949년 12월 30일을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173쪽에서 재인용.

64) 石宙明, 「濟州道 隨筆」(寶晉齋, 1968), 231쪽. 이 책은 석주명의 유고로 「濟州道 叢書」 중 하나이다. 이 「濟州道 叢書」에 대해서는 註76을 참고할 것.

4. ‘조선적 생물학’의 추구

석주명은 자신의 연구대상을 철저하게 ‘조선’의 나비로 한정하였다. 이는 그가 발표한 논문 중 많은 경우가 ‘朝鮮産’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 물론 그가 발표한 논문 중에 일본이나 중국의 나비에 관한 논문도 9편이 있다. 하지만 이들 논문의 서두에는 반드시 ‘조선산 나비에 대한 비교연구용’이라는 단서가 빠지지 않았다.⁶⁵⁾ 즉 그가 외국의 나비를 연구했던 목적은 “지구위에 있어서의 조선나비를 비교적으로 잘 알게되기 위한 것”이었다.⁶⁶⁾ 이와 같은 태도는 해방 후에 발표된 “國學과 生物學”이라는 글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되었다.

국학이란 국가를 주체로 한 학문이니 국가를 가진 민족은 반드시 국학을 요구하는 것이다. 종래로 국학이라면 한문책이나 보고 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국학이란 인문과학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더우기 생물학 방면에서는 깊은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에 많은 까치나 땃공이는 미국에도 소련에도 없고, 조선 사람이 常食하는 쌀은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그리 많이 먹지를 않는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학처럼 향토색이 농후한 것은 없어서 조선적 생물학 내지 조선 생물학이라는 학문도 성립될 수가 있다.⁶⁷⁾

석주명이 해방 전에 발표한 글에는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해방 이후에 이르러서 뒤늦게 생물학의 국학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시기의 그의 활동에서도 생물학의 국학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로부터 그가 추구했던 ‘조선적 생물학’이 어떠한 성격을 지닌 것이었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같은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관념은 석주명의 학문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석주명이 주장했던 ‘조선적 생물학’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무엇보다도 ‘조선적 생물학’은 이

65) 예를 들어 石宙明, “滿洲産蝶類目錄”, 「動物學雜誌」 51권 12호(1939), 773-776쪽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나는 이번에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및 “朝鮮産蝶類の研究史”의 2편의 拙著을 완성하여 인쇄중인데, 그 동안 나는 조선산 접류를 연구하기 위한 비교연구용으로 外地産 표본과 관계문헌을 모았다. 그 중 만주산 표본 및 관계문헌이 상당히 많아서 나의 편의를 위해 만주산 표본 목록을 작성하게 된 것이 본 목록을 만들게 된 동기이다.”

66)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217쪽.

67) 石宙明, “國學과 生物學”,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63-84쪽 중 63쪽. 이 글은 원래 1947년 서울신문에 다섯 차례 발표한 것을 다시 정리하여 金貞煥 編, 「現代文化讀本」(1948), 35-65쪽에 실은 것으로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215-235쪽과 위의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의 回顧錄」, 63-84쪽에 전재되었다.

땅에 서식하는 생물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이러한 측면은 석주명이 시종일관 조선산 나비에 대해 연구했으며 외국산 나비는 조선산 나비연구에 참고하기 위한 비교연구용으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조선산 나비만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조선적 생물학'의 한 부분인 '조선적 곤충학'을 지향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연구방법의 면에서 '조선적 곤충학'은 일본에서 거주하며 식민지 조선에서 보내주는 소수의 표본만으로 연구하는 일본인 학자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것이어야 했다. 즉 조선의 각 지역을 발로 누비면서 풍부한 표본을 채집·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국주의 본국에 자리잡고 있던 세분론자들의 오류를 정정해 나갔던 석주명식 분류학 방법론도 '조선적 생물학'의 한 요소였던 것이다. 세째로 '조선적 생물학' 연구를 통해 외국과는 다른 조선의 생물·생물상이 지닌 독특한 양상을 밝혀낼 수 있어야 했다. 이같은 의미에서 석주명은 1941년에 "朝鮮半島의 特殊性을 나타내는 數種의 蝶類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⁶⁸⁾ 이에 따르면 조선은 반도로서 대륙과 도서의 중간적 요소가 작용하여 만주 같은 대륙이나 일본 같은 도서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적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특히 오색나비, 긴은점표범나비, 푸른부전나비의 3종은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지역에 따라 복잡한 변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에는 이들에 대한 학명도 상당히 혼란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석주명은 이 3종의 나비에 대한 변이 양상을 조사하여 정확한 학명을 선정하고 각 종 내의 형 사이의 적당한 유연관계를 밝히는 한편, 같은 종의 다른 지역산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만주·일본산과의 차이를 보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적 생물학'은 조선의 생물을 대상으로 조선인 연구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선의 생물·생물상의 독특한 모습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석주명의 '조선적 생물학'은 자연과학적 분류학 분야를 넘어 나비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는 1949년에 발표한 글에서 자신이 인문학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나비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⁶⁹⁾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학문이 아무리 세분화되었다 하더라도 한 분야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과목에도 통하는 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예를 들어 나비의 학문인 鱗翅類學(lepidopterlogy)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직접 관계되는 곤충학, 동물학, 생물학에 어느 정도는 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시류학이 생물학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다른 분야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인시류학의 계통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다른 과학 분야와 인문학 분야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했다.

68) 石宙明, "朝鮮半島의 特殊性을 現す 數種의 蝶類に就て", 「日本學術協會報告」 16권 1호(1941), 73-81쪽.

69) 石宙明, "教師와 學者", 「새교육」 5호(1949), 85-86쪽.

석주명이 강조한 인문학적 접근의 한 모습은 산과 들이 아닌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나비 분류학 연구가 완숙기에 접어들었던 1930년대 말부터 조선의 古典에서 나비에 관한 부분을 찾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조선산 나비연구와 관련된 모든 학술 문헌의 역사를 담고 있는 *Synonymic Lis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나비로 확대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朝鮮王朝實錄」이나 문집 등에서 나비에 관한 기사를 발굴하거나 나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석주명은 특히 一濠 南啓宇에 대한 글을 여러편 발표하여 그를 널리 알리려 하였다.⁷⁰⁾ 남계우는 순조 11년(1811)에 나서 고종 27년(1890)에 죽은 인물로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나비를 중심으로 곤충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세간에 '南나비'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졌는데, 그의 그림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그림만으로도 종의 同定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석주명은 남계우가 그린 나비의 대부분이 경기도산으로 일부는 1930년대 당시 경기도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몇 종류가 있어 이를 통해 경성을 비롯한 경기도의 자연 상태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도 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남계우의 蝶圖가 일본에서 국보로 취급받는 프라이어(H. Pryer)의 *Rhopalocera Nihonica* 1886-9(日本 蝶圖)보다 훨씬 오래되고 그림도 뛰어나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계우와 그의 蝶圖의 가치는 그리 알려지지 못했는데, 석주명에 따르면 그 이유는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조선 사람의 곤충학이 성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⁷¹⁾ 이러한 분석은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조선 사람의 곤충학’이란 단순히 조선의 곤충을 채집·분류하는 것을 넘어 조선의 곤충에 관한 역사적인 추적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석주명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자신이 남계우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조선 사람의 곤충학’이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또한 석주명은 ‘조선 사람의 곤충학’, ‘조선적 곤충학’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옛 문헌에서 나비에 관한 기사를 추적하였는데, ‘나비’, ‘蝶’ 등 막연한 이름이 사용된 기사나 싹구들은 제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더하여져 범위가 국한되어 사용된 경우만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⁷²⁾ 그에 의

70) 석주명이 남계우에 대해 발표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石宙明, “一濠南啓宇の蝶圖に就て”, 「朝鮮」 1939년 1월호, 80-87쪽: “一濠南啓宇ノ蝶圖ニ就テ(第2報)”, 「朝鮮博物學會雜誌」 7권 28호(1940), 15-17쪽: “朝鮮の古蝶圖南啓宇の蝶圖に就て”, 「動物學雜誌」 52권 2호(1940), 50쪽: “南나비傳”, 「朝光」 1941년 3월호, 257-259쪽: “南啓宇の蝶圖に就て”, 「寶塚昆蟲館報」 28(1943), 1-19쪽 등과 “朝鮮産蝶類研究史”, 「朝光」 1940년 2월호, 286-289쪽이 있다. “朝鮮産蝶類研究史”는 체계적인 나비 연구사가 아니라 남계우와 실록에 실린 나비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는 글이다.

71) 石宙明, “南나비傳”, 259쪽.

72) 석주명이 고전에서 나비에 관한 기사를 찾아 발표한 글에는 石宙明, “蝶ニ關スル朝鮮古典ノ解説”,

하면 16세기 중엽 이후로 10여 전 이상의 기사가 실록이나 개인 문집, 잡지 등에 실렸다고 한다. 물론 이 중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사를 통해 나비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조상들의 나비에 관한 전통적 관념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록에 포함된 나비들은 대체로 크기가 큰 종으로 조상들은 작은 종류보다 큰 종류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 나비와 나방을 촉각의 형태와 앓을 때의 날개의 모양에 근거해 구분하려는 시도가 19세기 초부터 나타났다는 사실 등 선조들의 나비에 관한 이해를 전통 속에서 찾아내 복원시킬 수 있었다.⁷³⁾

이와 같이 ‘조선적 생물학’은 단순히 나비를 분류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나비를 매개로 하여 우리 역사와도 관련을 맺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석주명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나비 연구의 계통을 세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적 생물학’을 추구하면서 만들어 간 계통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는 문헌 속에서 나비에 대한 역사를 따지고, 나비라는 이름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는 일이 자신의 생물학 연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비에 대한 역사와 말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생물학이 단순한 자연과학을 넘어 국학적 성격을 더욱 짙게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가 추구한 ‘조선적 생물학’의 계통이란 바로 국학이라는 큰 줄기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주명은 자신의 생물학 연구가 국학의 영역에 자리매김되기를 원했던 것이며, 이러한 측면은 그가 생물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인문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국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했던 사실과도 맥이 통한다.

석주명은 우리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방언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방언 탐구는 송도고보 근무 시절부터 시작되었다.⁷⁴⁾ 이는 각 지역을 다니며 채집을 하는 동안 지방마다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 방언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결과로 여겨진다.⁷⁵⁾ 이러한 흥미는 1943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京城帝大 부설 생약연구소 제

「朝鮮博物學會雜誌」26(1939), 61-65쪽: “朝鮮나비 이야기”, 「朝光」1940년 5월호, 150-153쪽; 주 119에서 소개된 “朝鮮產蝶類研究史”, 유고인 “韓國產蝶類의 研究史”에 포함된 ‘나비에 關한 韓國古典의 解説’이 있다. ‘나비에 關한 韓國古典의 解説’은 “蝶ニ關スル朝鮮古典ノ解説”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 동안 새롭게 찾아낸 사실들을 첨가한 것이다.

73) 石宙明, “韓國產蝶類의 研究史”, 85쪽.

74) 송도고보를 졸업한 盧奎顯에 따르면, 석주명은 각 지방에서 올라 온 학생들에게 그 지방의 방언에 대해 질문을 하며 자신이 조사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송도중·고등학교동창회, 「송도학원 80년사」(학교법인 송도학원, 1989), 222쪽.

75) 석주명은 방언과 곤충간에는 지방 차이(지방型)와 개인 차이(개체變異)가 있는 등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고 연구 방법에도 유사한 점이 많아 방언 탐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힌 바 있다. 石

주도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그는 심지어 근무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까지 제주도의 방언을 조사·연구하는 열의를 보였다. 그 결과로 「濟州道 方言集」이라는 단행본을 비롯한 다수의 글이 발표되었으며,⁷⁶⁾ 특히 「濟州道 方言集」은 국어학계로부터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⁷⁷⁾

이처럼 석주명이 우리말에 대해 보여준 열의와 지식은 나비의 우리말 이름 짓기에 중요한 지적 기반이 되었다. 일제시기까지는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는 일부 종의 나비를 제외하고는 일본어 이름만 있고 우리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어 생물학을 우리글로 연구·발표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생물 이름의 확정이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되었다. 이에 석주명은 조선산 나비 248종의 우리말 이름을 직접 만들거나 정리하여 1947년 1월 조선생물학회에서 통과시켰다.⁷⁸⁾ 그가 만든 나비 이름에는 우리말에 대한 그의 감각과 재능이 잘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각시땃노랑나비, 떠들석팔랑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번개오색나비, 처녀나비(봄처녀·도시처녀·시골처녀), 수풀알락팔랑나비, 알락그늘나비, 은점어리표범나비, 청띠신선나비 등 많은 이름이 순수한 우리말로 지어졌다.⁷⁹⁾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나비 이름의 70% 이상은 그가 지은 이름이 변함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변화된 이름 중 상당수는 그가 원래 지은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였다.

석주명은 한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을 여러 편 발표했으며,⁸⁰⁾ 우리말에 대한 관

宙明, “國學과 生物學”, 79-80쪽.

76) 석주명은 제주도의 방언뿐 아니라 구전 민요, 인구, 곤충상 등 제주도에 관한 모든 것을 조사하여 6권에 이르는 「濟州道 叢書」를 집필하게 되었다. 「濟州道 叢書」6권은 「濟州道 方言集」(서울신문社 出版部, 1947)을 시작으로 「濟州道の 生命調査書—濟州道 人口論」(서울신문社 出版部, 1949), 「濟州道 文獻集」(서울신문社 出版部, 1949)의 세 권이 그의 생존시에 출간되었고, 註64에서 소개된 「濟州道 隨筆」과 「濟州道 昆蟲相」(寶晉齋, 1970), 「濟州道 資料集」(寶晉齋, 1971)은 유고로 남아 석주선에 의해 뒤늦게 간행되었다.

77) 국어학자 方鍾鉉은 석주명의 「濟州道 方言集」에 대하여 “우리의 방언학 상에 장차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귀하다. 어휘며 음운 방면은 물론이요 제주도 방언의 문법까지도 이것에 의하여 조성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학적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일반으로 편익을 주는 점에서 이 책은 실로 귀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方鍾鉉, “石宙明 著 「濟州道方言」”, 「서울신문」 1948년 3월 12일.

78) 石宙明, “朝鮮産蝶類總目錄(조선 나비의 조선 이름)”, 「國立科學博物館 動物學部 研究報告」 2권 1호(1947), 1-16쪽. 여기에는 조선산 나비 248종 및 일부 아종과 중요한 型名이 들어 있다.

79) 나비의 우리 이름에 대한 설명은 石宙明, 「朝鮮 나비이름의 由來記」(白楊堂, 1947)를 참고할 것. 이 책은 석주명이 기존의 조선산 나비 이름의 유래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과 자신이 직접 지은 이름에 대한 설명을 실고 있다.

심과 전공인 생물학 지식을 결합하여 정확한 우리말 생물학 용어를 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1949년 이석하·권중휘가 펴낸 영한사전의 생물학 관련 450여 항목을 담당하여 적절한 우리말을 찾는 일에 매달렸으며, 향토색이 짙은 동식물명을 비롯한 생물학 관련 용어를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⁸¹⁾

또한 석주명은 옛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에 대한 기록을 모아 발표하는 등 제주도, 울릉도 등에 대한 민속적·역사적 조사를 펼쳤으며,⁸²⁾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박물학 연표를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韓國本位 世界博物學年表」에는 역사에 대한 그의 남다른 열의가 잘 드러나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계문화사의 연표로서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사건들과 함께 여러 과학적·문화적 성과들을 담고 있다. 그는 이 책의 卷頭言에서 “국가가 있는 민족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연표를 요구”하며, “이 연표의 내용들은 창 의가 있어야겠고 그것이 세계적 또는 한국적이라야만” 한다고 보고, “이 연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과학사 내지 세계문화사에 호응이 맞도록 힘써보았다”고 밝혔다.⁸³⁾

이와 같이 석주명이 보여준 우리말과 역사에 대한 관심은 조선의 전 산야를 누비는 석주명 식 연구과정의 산물이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양상을 띠는 방언과 특정 지역의 흥미로운 향토사 등은 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으며, 더 나아가 *Synonymic List*를 준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조선의 나비에 대한 역사적·국어적 탐구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석주명의 관심은 여러 국학자들과 학문적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그들로부터 국학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韓國本位 世界博物學年表」의 서문에서 鄭寅普는 석주명을 “자기 연구하는 바와 맥락이 서로 통하는 곳이면 그 부지런을 쓰지 아니한 데가 없”는 사람이라 칭하고, “무릇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와 관계가 있고, 관계가 있는 바에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며, “국학의 영역 안에서 서로 비취는 바 깊은 지 오래으로 두어 줄 글월을 써서 권두에 붙인다”고 기술하였다.⁸⁴⁾ 이 글에서 정인보는 자신이 석주명과 1930년대 중반부

80) 석주명은 신문과 잡지에 한글에 대한 글을 종종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石宙明, “崔鉉培氏 著 「글자의 혁명」 評”, 「東亞日報」 1947년 8월 3일: “言語政策에 對한 所感”, 「주간서울」 30호(1949), 6쪽: “漢字制限論”, 「聯合新聞」 1950년 1월 15일: 金永石, “우리의 國號와 年號와 글”, 「新天地」 1948년 2월호, 194-195쪽 등이 있다. 김영석이라는 이름은 석주명이 전공이 아닌 분야의 글을 발표할 때 간혹 사용했던 필명이다.

81) 石宙明, “生物學과 英韓辭典”, 「新天地」 1950년 5월호, 126-128쪽.

82) 石宙明, “耽羅古史”, 「國學」 3호(1947), 25-28쪽: “鬱陵島의 人文”, 「新天地」 1948년 2월호, 200-201쪽 등 4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83) 石宙明, 「韓國本位 世界博物學年表」(新陽社, 1992), v 쪽. 이 책은 1949년에 완성되었으나 바로 출판되지 못하고 1992년 석주선에 의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터 교류를 가졌다고 밝혔다.⁸⁵⁾ 또한 석주명이 1939년에 발표한 “蝶에 관한 朝鮮古典의 解説”의 말미에는 집필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정인보, 崔南善 등의 역사학자와 洪起文, 金台俊, 方鍾鉉, 趙潤濟 등의 국어국문학자가 포함되어 있다.⁸⁶⁾

이처럼 석주명이 국학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여러 국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갖고 국학적 성격의 글들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그의 생물학 연구를 ‘조선학 운동’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조선학 운동’이란 1930년대 중반이래 국사·국어 연구를 중심으로 국학 연구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양상을 지칭한다.⁸⁷⁾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학자들 사이에 조선학의 대상과 성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⁸⁸⁾ 대체로 조선의 문화적 특수 경향을 탐구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 했던 연구경향을 ‘조선학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의 생물을 대상으로, 조선에서 가능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선의 생물상의 독특성을 보이하고자 했던 그의 생물학 연구는 그 자체로 조선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넓은 의미의 국학(조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석주명이 조선학 운동이 한창일 때부터 정인보 등의 국학자(조선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산 나비에 대한 국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사실은 그의 생물학 연구가 ‘조선학 운동’의 지적 흐름에 놓여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즉 석주명이 추구한 ‘조선적 생물학’은 자연과학 분야의 조선

84) 鄭寅普, “序”, 石宙明, 「韓國本位 世界博物學年表」, iii-iv쪽.

85) 실제 정인보와 석주명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이는 해방후 정인보가 국학대학의 학장으로 있을 때 석주명이 그의 부탁으로 에스페란토 강사로 나섰다가, 정인보가 석주명을 칭송하는 한시를 헌정했다는 사실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 한시는 석주명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으며 이병철이 사본을 지니고 있다. 인터뷰: 이병철 (1996년 1월 26일).

86) 조운제, 김태준, 홍기문, 방중현은 朝鮮語文學會, 朝鮮語學會 등에서 활약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趙容萬·宋敏鎬·朴炳采, 「日帝下の 文化運動史」(玄音社, 1982)를 참고할 것.

87) 조선학운동에 관해서는 조동걸·한영우·박찬승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1994); 韓永愚, 「韓國民族主義 歷史學」(一潮閣, 1994); “한국학의 개념과 분화”, 「한국학 연구」 1집(1994), 1-24쪽; 趙容萬·宋敏鎬·朴炳采, 「日帝下の 文化運動史」를 참고할 것.

88) 문일평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조선학의 대상에 대한 두 입장을 찾아 볼 수 있다. “근일에 사용하는 조선학은 흔히 埃及學과 阿시리아學과 병칭하는 경향이 있다마는 여기는 다소 그 의의가 다르니, 광의로는 종교·철학·예술·민속·전설 할 것 없이 조선 연구의 학적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포함한 것이나, 협의로는 조선어·조선사를 비롯하여 純朝鮮文學같은 것을 주로 지칭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엄정한 입장에서 조선학이란 광의보다도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 조선인의 특수성을 표시하는 그 언어를 비롯하여 조선인의 과거상을 영사하는 그 역사이며 또는 조선인의 실생활을 조선말로 써낸 조선 문학 같은 것이 조선학을 구성한 중심 골자가 되어야 하겠다.” 文一平, “史眼으로 본 朝鮮(九)一朝鮮學의 意義”, 「朝鮮日報」 1933년 5월 16일.

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주명은 자신의 ‘조선적 생물학’을 국학의 영역에 자리매김하여 자신의 연구에 민족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가치 중립적이라 여겨지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킬 수 있었다. 그가 추구한 ‘조선적 생물학’은 당시 조선에서의 생물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던 일본인 학자들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동일했지만 그들과는 다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그들에 의해 왜곡된 조선의 생물상을 정정하고, 더 나아가 조선산 나비를 둘러싼 조선사적·국어학적 의미망을 건설하려 한 석주명의 태도는 다른 생물학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생물학 연구는 연구 방법에서도, 그리고 그 연구가 지향하는 가치에서도 지극히 조선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석주명은 해방 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벌써 20년 동안 나비를 잡았고 또 앞으로 20년 동안 더 계속될 것이다. 나의 나비잡이의 半過程 즉 나의 인생의 半過程을 채웠다. 과거의 나의 半生은 평탄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공부란 것은 아무 點으로 나 鬭爭 그것이었다. 일본놈들도 다 물러가고 형편이 다 달라졌으니 나는 나의 後半航程에 오르기 위하여 과거의 나의 업적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⁸⁹⁾

석주명의 이같은 회고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일제시기 동안 자신의 생물학 연구를 일본인 학자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지극히 조선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석주명은 단순히 나비분류학만을 연구한 나비학자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런 저런 분야에 호사가적 관심을 보였던 ‘博物 학자’만도 아니었다. 그는 생물학 연구를 국학의 차원에 자리매김한 ‘조선적 생물학’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에 민족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조선적 생물학자’였다.

5. 요약 및 결론

일제시기에 조선에서 행해진 생물학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으나, 나비분류학 분야에 관한 한 1930년대 초부터 발표된 중요한 연구성과는 대부분 석주명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중등학교 박물관사로 근무하면서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펼쳤기에 연구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연구주제·대상

89) 石宙明, “나비採集 二十年の回顧錄”, 217쪽.

및 연구방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석주명은 조선산 나비라는 한 분야에만 집중하여, 각 종의 개체변이 범위를 밝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잘못 명명된 학명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개체변이를 파악함으로써 동종이명을 정리한다는 아이디어를 석주명이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수많은 개체를 채집·조사하는 과정에서 변이연구의 가치를 직접 인식하게 되었으며,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힐 수 있는 정량적인 형질로 앞날개의 길이와 뱀눈무늬의 수와 위치라는 형질을 선택하여 통계처리를 한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방식을 정립해 나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석주명은 조선산 나비에 대한 동종이명 800여 개 이상을 정리하였으며, 전형적인 통합론자로서 그의 연구 결과는 당시의 학계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았다.

나는 석주명이 그같이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요인을 그가 택한 방법론이 자신의 여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것이었으며, 당시의 분류학 연구상황에서 볼 때 매우 적절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조선산 나비에 대한 연구는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석주명이 연구를 시작할 즈음에는 이미 50여 년에 걸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세분론자들처럼 가급적 새로운 종·아종 등으로 기재하려는 연구태도를 좇았다면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그는 변이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작업을 정리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즉 마쓰무라와 같이 일본에 연구 중심지를 차리고 각지에서 보내오는 소수의 표본을 근거로 새로운 학명을 명명했던 연구방식으로부터 파생된 오류를 하나씩 정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체변이를 밝힘으로써 동종이명을 정리하는 연구에는 무엇보다도 다수의 개체를 채집하고, 그 표본들의 형질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노력이 전제가 되었다. 석주명은 이러한 전제를 20여 년 동안 75만 개체에 이르는 표본의 날개 길이를 일일이 측정했던 남다른 집념으로 채워나갔다. 그가 이처럼 많은 개체를 살필 수 있었던 데에는 송도고보의 교사로서 학생들의 채집 표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결국 석주명의 연구업적은 그가 당시의 상황에서 가능했던 최선의 연구방법을 사용했다는 것과 그러한 연구방법을 뒷받침했던 '정진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석주명은 그 대상을 철저하게 조선산 나비로 한정하였다. 물론 이는 식민지의 중등학교 박물관사라는 그의 처지에서 해외의 나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기가 힘들었다는 현실적 한계의 결과이기도 했다. 석주명은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당한 수의 외국산 나비 표본도 지니고 있었지만 그에게 그러한 표본들은 조선산 나비를 연구하는 데 '비교연구용'으로만 의미가 있었다. 그가 20여 년의 연구생활 동안 고집스럽게 조선산 나비만을 연구한 것은 그 나름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적 생물학'의

추구였다.

해방 후 석주명이 내세운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표현은 생물학의 국학성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그가 생각한 ‘조선적 생물학’은 조선에서 나는 생물을 대상으로 조선인 연구자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조선의 생물·생물상의 독특성을 보이는 것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지니고 있었다. 더 나아가 ‘조선적 생물학’은 조선의 전통·역사 속에서 연구대상을 찾는 작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나비에 관한 우리말의 변화를 살피고 나비와 관계된 역사적 인물과 기록들을 발굴·소개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가 찾아낸 인물과 기록이 지니는 학문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비라는 생물에 대한 선조들의 관념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나비에 대한 근대적 생물학 연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Synonymic List*와는 다른, 생물에 대한 전통적인 탐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

조선의 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왜곡되지 않은 조선의 생물상을 밝히고자 했던 석주명의 생물학 연구는 조선을 아는 것이라는 광의의 국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1930년대 중반부터 정인보를 비롯한 조선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가지며 조선의 생물에 대한 역사적·국어적 연구를 펼쳐 ‘조선적 생물학’에 국학의 성격을 더욱 짙게 부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석주명이 보여 준 국학적 관심은 ‘조선학 운동’이라는 당시의 지적 움직임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활동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선학 운동’과 그에 참여한 학자들과의 교류가 ‘조선적 생물학’의 지적 배경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 전역을 누비던 자신의 연구방법 덕분에 각 지역마다의 독특한 방언이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석주명은 ‘조선학 운동’의 흐름 속에서 조선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흥미를 더욱 구체화하여 이를 자신의 나비연구와 결합시킴으로써 ‘조선적 생물학’이라는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그가 추구했던 ‘조선적 생물학’은 193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조선학 운동’의 한 줄기로서 자연과학 분야의 조선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석주명이 조선학의 한 부분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를 민족주의자라거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일종의 민족주의 운동을 펼친 인물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석주명의 ‘조선적 생물학’의 기저에는 자신의 연구를 국학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그의 노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조선적 생물학’의 추구는 조선을 이해하려는 석주명식 접근법의 표현이었던 것이다.